1

한국주택협회, 제6대 신훈 회장 취임

# 제15회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

**올해 15회를 맞는 주택협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30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해 주택협회의 운영 성과와 2007년 협회 계획 등을 발표하고 신임 회장 취임식을 실시한 주택협회 정기총회를 다녀왔다.**

에디터 | 하유정 · 사진 | 고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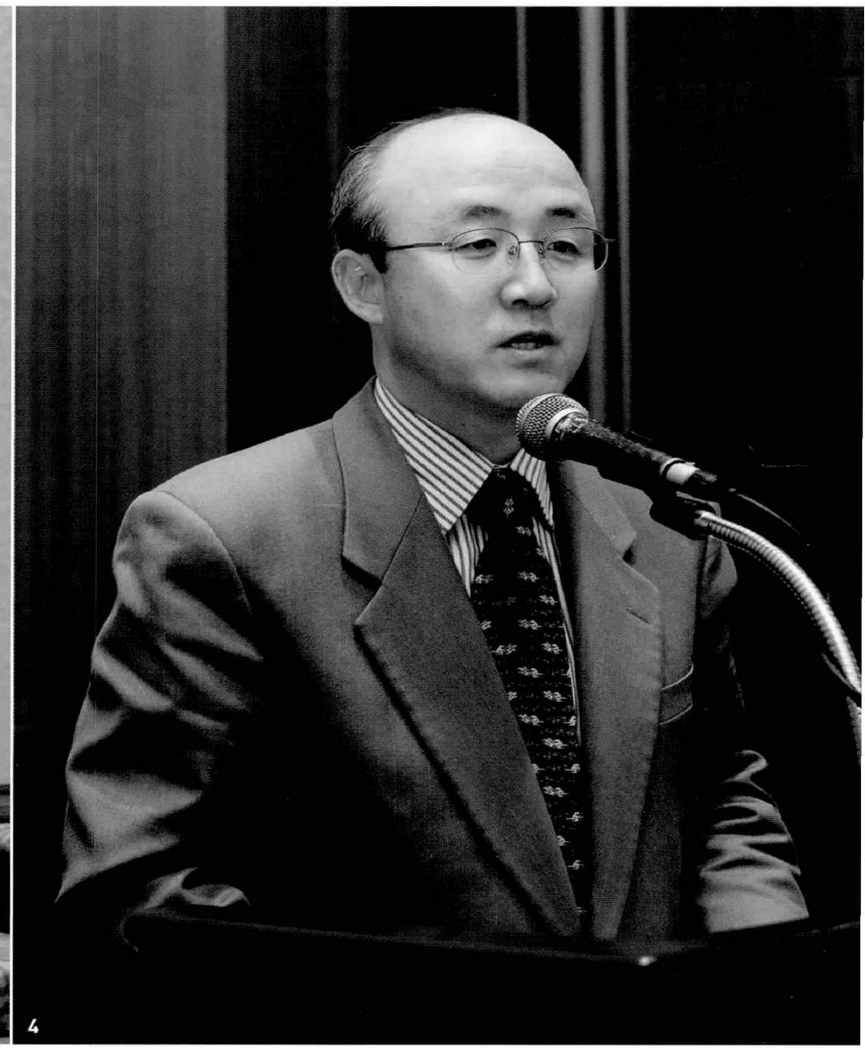
2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3월 30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3층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제15회 정기총회' 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방주 회장을 비롯한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윤오수 협회 상근부회장, 박창규 대우건설 사장, 동문건설 경재용 회장 등 회원사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방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제일 큰 화두는 '부동산' 이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됐다. 주택업계측도 더 이상 주택 가격이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고 밝히고, "올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과 기술 개발을 통해 주택의 질이 향상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 을 요청했다. 또한 "주택업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많지만 지난 IMF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던 슬기와 용기로 이겨내 잘 헤쳐나갈 것으로 믿는다" 고 이 회장은 말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올해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는 해" 라며 "주택 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향상을 동시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택업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정부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국민 임대주택 건설과 더불어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높여 갈 것이며, 실수요자 금융 지원 강화와 1642만평의 택지 공급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13만호, 분양주택 40만호 건설을 추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걸맞는 주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분양 시장의 질서 확립에도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방주 회장 이하 회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 주택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3


4

**예산 · 결산안과 신임 회장 선출 회의 안건 승인**

이어서 회의 안건에서는 제1호 의안인 2006년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 결산 보고 상정안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 34억 6195만 원, 특별 회계 20억 4971만 원 규모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에 따른 감사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 제2호 의안인 2007년 사업계획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정은 일반회계 33억 6370만 원, 특별회계 13억 6278만 원 규모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제3호 의안인 차기 회장 선출의 건은 지난 3월 22일 제2차 이사회에서 추천돼 금호아시아나 그룹 건설부문 신훈 부회장이 제6대 한국주택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신훈 회장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 그룹 IT시스템 총괄 부사장과 금호산업 건설산업부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호아시아나 그룹 건설부문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문 경영인이다. 제4호 의안인 이사 및 감사 선출 건에 대해서는 박창규 대우건설 사장이 이사 선출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고 감사는 이 자리에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재용 동문건설 회장이 현 감사인 포스코건설 한수양 사장과 화성산업 이홍중 사장을 추천해 이에 대한 동의와 함께 재청이 이루어져 선출됐다.

또 지난 3월 22일 제2차 이사회에서 앞으로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해 회장과 비상근 부회장 3인은 전문 경영인과 오너 경영인의 구성 비율을 50:50으로 정한다고 보고했다. 전문 경영인으로는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과 오너 경영인으로는 대동주택 곽정환 회장과 동문건설 경재용 회장을 비상근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신임 회장과 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 신훈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취임**

전임 회장의 이임 사에서 이방주 회장은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새로운 회장이 선임되면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훈 신임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에 동행하고 있어 취임사를 영상으로 대신했다. 신 회장은 "주택업계는 그동안 연간 50

1 올해로 제15회를 맞이하는 주택협회 정기 총회 전경. 2 제6대 한국주택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금호아시아나 신훈 부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동행 중에 영상 메시지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3 3년 동안 한국주택협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이방주 회장. 4 '주택의 미래 지향적 속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박환용 교수. 5 이날 행사장에는 이방주 회장을 비롯한 이춘희 건설 교통부 차관, 윤오수 협회 상근 부회장 등 많은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만호 이상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 고 말하고,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의 주거 수준에 비해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주거의 질도 더 향상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지난 한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대책의 여파로 "올해는 주택 경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며 주택 건설인이 단합해 정부의 주택 정책에 호응하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협회가 앞장서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5년, 10년을 내다보고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박환용 교수의 특강 '주택의 미래지향적 속성'**

협회 정기 총회 이후 '주택의 미래 지향적 속성' 이라는 주제로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박환용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다. 박환용 교수는 "한국 특유의 도시 주택 성격이 도시 계획 및 설계와 건축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고 말했다. 쾌적한 주거 공간, 살고 싶은 동네, 선택 가능한 주택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쾌적한 주거 공간을 위해서는 주호별 적주성, 레크레이션 공간 조성, 보안과 안정성, 근린 환경의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살고 싶은 주거지는 자동차와 도시 활동에 빼앗긴 도시 주거 공간을 동네 거주민에게 삶의 공간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이며, 이를 통해 주거 지역의 거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택 가능한 주택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 유형, 부담 가능한 주택, 지역에 따라 적절한 분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및 토지 분야에서 급격한 사이클을 주기적으로 경험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주택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장 시스템이 건축 계획 및 도시 계획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의 환경 구축과 상호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강을 마치고 1시간 가량 진행된 주택협회 정기총회는 무사히 마무리됐다.